

即身成佛의 大道－密教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창간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발행인 안종호
편집인 이중석
인쇄인 김규석대표 전화 (02)552-1080
발행인 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주요기사

- 1면 • 총지종보창간
• 종령법어
- 2면 • 불교계 인사 창간축사
• 사설
• 행사 및 법회안내
- 3면 • 종조약전
• 창간사
• 밀교-대승불교의 진면목
- 4면 • 특별좌담회
"총지종의 미래와 발전방향"
- 참된 빛전은 참된 수행에서
- 불교교육은 포교에 연결
- 학술연구지원과 장학제도의 확대
- 사상적 교리적 특성
부각으로 탄생단과 차별화
- 5면 • 종단발전의 견인차: 총지종 법장원
• 다시 생각하는 불교
- 7면 • 고내인사 창간축사
• 총지종보 이렇게 꾸며진다.
- 8면 • 종단 주요행사
- 여름학생 수련대회
- 어린이불자 수련대회
- 부산정각사본당 신축공사
• 만다라의 세계

「총지종보」 10월 16일 창간

맑고 밝은 법음 전하는 진리의 메아리
지혜에 눈뜨고 자비에 가슴 열리게



자비의 연꽃위에 빛나는 지혜의 보주여! 음마니반메훔

(동욱스님 연꽃 사진집 "꽃을 드니 미소짓다" 중에서)

종보창간 기념 대법회 추계 강공회 개회식과 겸하여

나 읽기 쉽도록 배려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읽기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신문이 되도록 시각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겠다. 1, 8면은 컬러로 제작되며 항후 3~4회에 걸쳐 격월간, 8면으로 발행되나 이후 월간으로 전환하며 인원과 장비가 보강되는대로 면수도 늘어도록 하겠다.

종보를 통하여 진리의 메아리가 물려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대한다. (관련 기사 7면)

『총지종보』 창간 기념대법회가 10월 24일 오후 3시 총지사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념법회는 46회 추계 강공회 개회식을 겸하여 열리는데 전국 스승 및 교도 대표, 본 종단과 관계있는 불교계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회가 끝난 뒤 3층 대강당에서 리셉션이 개최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창간을 축하하기 위하

여 신정회 대표 및 부산 정각사와 대전만보사 합창단이 참석하며 25일부터 28일까지의 추계 강공회 기간에는 외부 강사 및 법장원 연구원의 불신론(佛身論) 및 성불론(成佛論)에 대한 특강과 『미래의 교회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七情에 흐려져 망설이지 말고
자성을 닦을지며 현실에 헤매이지
말고 오직 真理를 깨칠지니라

- 종조법설집 -

종령법어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를
전하는 진리의場

宗領 祿靜

법신불이 설하시는 비밀하고 오묘한 세계를 하찮은 인간의 언어로 어찌 감히 유효리겠는가마는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그나마 그 하찮은 말마디에 의지하여 진리를 더듬어 나가니 말이란 없어서는 또 아니되는 것이다. 이제 『총지종보』가 발간되어 법을 전하고 아름다운 메아리를 전하겠다니 더없는 기쁨이 되어 석정이 앞서도다. 세상의 저 거짓으로 가득찬 먹물의 잔치에 물이리도 들면 어찌 할거나. 부디 우리 『총지종보』는 바르고 아름답고 맑은 소리만 전할지이다. 그리하여 살아에 헤덕이는 중생에게는 시원한 감로가 되고 미망에 헤메이는 중생에게는 빛이 되거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종소리가 되고 웃음을 꽂피우는 연화가 되거라.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봉행

"원정종조의 창종의지 오늘에 되살려야"

15주기 종조멸도절 추선불사가 9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다음 8일 경인 지구 스승 및 교도들이 만 번할 수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 모인 가운데 총지사 본당 3층 대강에 따른 교회 방편으로 시대의 호당에서 봉행되었다. 이번 불사에서 를 통찰한 원정종조님의 창종의지 효감 통리원장을 주도사를 통해 시를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대는 변해도 불공정진의 공덕은 영광이며 또한 법계의 사명이라고 했을 하며 이러한 혼탁한 물질시대일수록 더욱 정진에 힘써 마음을 청정하라.

(관련기사 3면)



추선사를 낭독하고 있는 록정 종령

한국 불교문화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 불교텔레비전

祝
創刊

총지종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영상포교의

새시대 선언·불교텔레비전”



2천8백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텔레비전이 영상포교의 새시대를
선언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깨달음의 길잡이로써
무명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고뇌와 번민의 근원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할것이며,
온누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도록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치옹화의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32

본사 :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 02)3270-3300 팩스 : 3270-3498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 051)645-5114 팩스 : 631-1772

사설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입각
보살도 실천의 매체가 되도록

그동안 우리의 숙원이었던 「총지종보」가 오늘로서 창간되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불법을 언제나 우리곁에 기꺼이 두려고 애써왔던 우리 종단으로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 그 뜻깊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대하여 우선 원정종조님과 환경대종사, 복지화 지수등 총지종의 오늘의 있게끔 친절을 바치신 여러 선사들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재가불교로서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교회에 정진하시는 여러 스승님들과 오직 밀법의 수승한 가르침에 의지하여 화합단결로서 보살도의 실천에 앞장서고 계시는 오십만 종도 여러분에게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가치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세상의 저 수많은 언어의 장(場)에서 진실하고 올바른 말이 과연 그 몇이나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기쁨을 주는 말이 그 몇이나 될 것인가? 저 거짓되고 편견과 이집에 사로잡힌 세간의 허망한 말잔치 판에는 끼어들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사비세계에 또 하나의 소음공해를 보태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창간에 불이는 우리의 결심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정신에 입각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여 한마디의 말에도 진실이 배어나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비추어보며 즐거워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게 하는 거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총지종만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전 불교계의 길잡이가 되고 이 시대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다.

총지종보는 당분간 월 일회 8면으로 발행된다.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유능한 인재가 더 충원되고 장비가 갖추어진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발간 횟수와 증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시대에 부응하여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교특유의 일부용어에 있어서는 한자의 사용도 병행한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우리 총지종 내의 각종 소식은 물론 불교계의 주요한 사건들을 전달하며 비른 불교관, 특히 정통밀교 종단으로서의 확실한 불교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전해석과 설법란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불교와 관련된 역사, 문화 등 다방면의 소재를 취급함으로서 독자들의 불교에 대한 시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살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 보살님들의 소중한 체험과 증과를 나누어가길 수 있는 참여란도 최대한 배려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불자들의 지혜를 개발하고 정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계재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총지종보」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의 힘만으로 종보가 만들어 질 수는 없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 우리 「총지종보」는 더욱 충실히지고 풍부해지며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없는 우리 총지종의 얼굴이 될 것이다. 이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 길잡이가 되고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영겁토록 발전하며 제구실을 다할 수 있는 진정한 「총지종보」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희망하는 바이다.

<사령>

명예 기자에 명함.
김병구(소속: 자석사)
김혜경(소속: 수인사)
박기산(소속: 관음사)
윤승호(소속: 통리원)
편집부 기자에 명함.
박현수(소속: 통리원)
임영주(소속: 통리원)

보도부 기자에 명함.
김재훈(소속: 통리원)
윤승호(소속: 통리원)
편집부 기자에 명함.
정우현(소속: 통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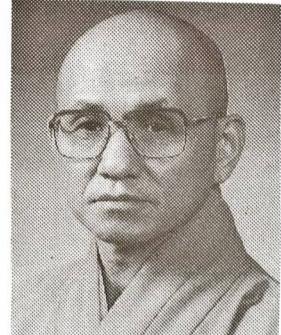
(총기 24년 10월 2일자)

총지종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불교계 대표인사 창간축사

불교의 미래를 열고

정통밀교의 맥을 이어가기를



흔탁한 사비에 청량한 법을 전할 총지종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총지종은 잠자고 있던 이 광의 밀교의 맥을 오늘에 되살리고 정통밀교 종단으로서 태종단의 모범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승단과 교도의 화합단결로 교세의 길잡이가 되고 이 시대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지종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교회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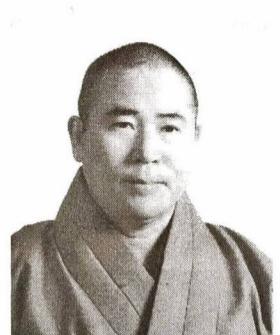
찌기 불교방송과 불교텔레비전의 설립에 참여하여 불법의 홍포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불교진흥을 위하여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활자매체를 통한 불법의 홍포에 나서게 되니 참으로 기뻐할입니다.

수많은 언어가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져 가는 이 밀법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 정견과 정어로 중생을 교화하고 바른길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언론이 되기를 바라며 불교의 미래를 열고 정통밀교의 맥을 이어갈 흉룡한 종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귀종단과 총지종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횃불!

즉신성불의 원리 전파하기를



우선 총지종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밀교종단으로서 착실한 성장을 통하여 불교방송 및 불교텔레비전의 설립에 참여하여 불법홍보에 노력해 온데 이어 다시 총지종보를 창간하여 지상 설법을 펼치게 되니 기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지종보는 사바의 무명을 밝히려 높이 치켜든 지혜의 횃

불입니다. 물질위주의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가치관은 전도되고 이승 외도가 판을 치는 이때에 총지종보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간의 삼독성을 걸려내고 또 즉신성불의 원리를 전파하는 매개자로서 그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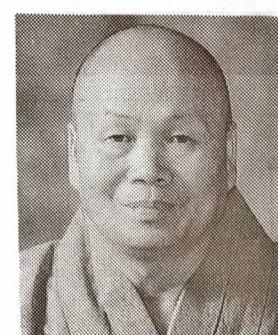
또한 사회를 바로 보고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 생활불교, 실천불교로서의 종단의 모든 옛세지가 이 종보를 통하여 전달되고 종도들은 이를 통하여 날로 신앙이 염글게 될 것입니다. 모조록 광제증생의 총지종보가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불기 2539년 9월

불교방송 이사장 박종하

불교홍포의 견인차가 되고

깨어있는 목탁이 되기를



기대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계도 첨단영상매체인 불교 TV가 시장세계에 방송됨으로써, 교계가 지향하고 있는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총지종은 불교TV와 「총지종보」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총지종보」의 창간은 단순히 또 하나의 활자매체가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지는 새로운 공기(公器)가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불기 2539년 9월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태웅

불교중흥의 초석 다지고
신행의 길잡이가 되기를

수 있어야 하며 다만 그것이 후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행동에 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지종보」는 불교총지종의 종지의 선양은 물론 교계 내외에 소식을 널리 알리고 모든 불자들의 신행을 계도하여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지종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언론매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총지종보」의 창간은 종단뿐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도 매우 뜻깊고 반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해가는 우리 한국불교는 지난 날의 안일과 소극적인 자세로 부터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1995.9.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돈각

밀교를 알리는 포교지로서
종단유대의 교지 되기를

하니 불교인으로써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총지종보는 벌써 창간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신문이 아닌 소식지로 대체해오다가 이제부터 명실공히 관의 허기를 드는 신문으로 출범함은 전불교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신문이 창간되어 총지종의 밀교를 신봉하는 모든 신자들이 교리를 명철하게 알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종단과의 유대에도 큰 뜻을 하는 대변자가 되고 나아가 밀교를 모르는 불교신자나 사회인들에게도 밀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고 귀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밀교를 신봉하는 신도수도 엄청나게 확산되고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성직자들의 종교적,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여 어느 종단 못지 않게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종단이 포교지로써, 신자와 종단과의 소식지로써 「총지종보」가 창간된다

행사 및 법회안내

- 총보창간 기념법회: 10월 24일
- 46회 추계강공회: 10월 24일 ~ 25일
- 복지화지수 열반 3주기: 10월 29일
- 11월 월초불공: 11월 6일 ~ 12일
- 교양대학개원: 11월 15일
- 12월 월초불공: 12월 4일 ~ 10일
- 장교절: 12월 24일



창간을 축하합니다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부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천왕사 주지

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회의원

부회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범상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송월주

서운석

봉덕모

서지

홍대파

혜일공

경대운

법혜운

정정운

설혜태

김혜태

이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사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사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이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사 천화 불교 교정

이사 대한불교 미타종 종정

이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이사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이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이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이사 대한불교 진각종 홍교부장

감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감사 대한불교 미륵종 종정

이정이 김윤현 이이권 김신김윤김이 김윤김

법일대법일봉 청희 해법시자 도상광우

덕화화우 오해봉 수홍곡 태현월원을 태당

사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립해 주신 서윤길 회장님과 송병우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효감통리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저희 총지종의 특집기사로서 "총지종의 미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종단발전에 귀감을 삼고자 하니 아무쪼록 기坦없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감: 서박사님께서는 그동안 밀교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밀교학 발전을 위하여 후진양성에 힘쓰고 계시는데 불교대학장의 중책까지 맡으셔서 업무에 다방면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종단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종단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밀교를 연구하시는 석학으로서 밀교종단인 저희 총지종에 대해서는 남다른 서박사님의 기坦없는 조언을 기대합니다. 또한 송국장님께서는 불교계의 여러 방면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으시고 현재도 불교 방송의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계시는데 밀교학자는 아니시지만 전체 불교계를 보는 시각은 누구보다 탁월하시라 믿습니다. 전체 불교계에서의 총지종의 위상정립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지종-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는 실천불교

사회: 아시다시피 저희 총지종은 밀교종단이면서 재가불교라는 특수한, 어떤면에서는 혁신적이라고 할만한 종지를 가지고 대중불교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불교종단과는 모든 면에서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총지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통리원장님께서 총지종의 특수성과 종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감: 2500년전에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한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실천보다는 이론과 관념에 치우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자 대승불교가 탄생했지만 대승불교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실천면을 소홀히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밀교는 실천과 수행을 매우 중시합니다. 저희 원정종조께서도 강조하셨다시피 당상즉도 즉시이진(當相即道 卽事而真), 곧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고 과파하시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총지종의 기치로 삼은 것입니다. 기존 불교는 산중불교로서 어떤 면에서는 종생교화에 적극적인 면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파성을 떤 불교였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저희 총지종은 적극적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도심에 당당하게 현대식 사원을 건립하고 편의보발(便衣保髮)에 승속동수(僧俗同修)라 하여 누구나 같은 위치에서 실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불교사에서 대승불교의 새로

양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속의 현대식 건물에 불상도 모시지 않고 편의보발한 승직자를 보면 매우 이질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생활불교로서 뿐만 아니라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법신불을 교주로 하므로써 깨달음의 과정에는 불상의 유무나 편의보발등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생활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생활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대승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지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지종의 그러한 모든 것이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이며 이를 실천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동안 그러한 노력을 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점을 알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바탕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 대승불교를 거쳐 오면서 그 정점에 밀교가 있다고 볼 때 그것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 가에 대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볼니다. 서구나 일본 등지에서 교학적인 밀교의 위상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협교오 밀교로 대분할 때 현

창간 기념 좌담회

총지종의 미래

참된 발전은

일시: 총기 24년 8월 21일

장소: 불교 총지종 법장원 회의실

참석자: 徐閏吉 박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宋炳旭 박사(불교방송 재단사무국장)

安曉岡(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사회: 李華靈(총지종보 편집장)

밀교의 대중화를 위한 원정종조의 창종이념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종단에서는 대일경, 금강경정, 대승장암보경등 밀교경전을 소의 경전으로 하지만 일반 경전의 연구와 독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희 종단의 교재로 쓰이는 불교총전도 밀교는 물론 현교의 모든 것을 섭수한다는 입장에서 편찬된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 의미의 밀교는 현교의 모든 것을 포함하나 상대적 의미의 밀교는 현교의 종교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밀교의 특수성과 밀교로서의 특수성이 일반 대중에게 잘 이해되도록 하고 총지종의 선구자적인 종지가 한국불교계에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宋: 어쨌든 총지종민의 독자성을 고집하기 보다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한국불교의 밀교적 통사위에서 이 시대의 여려 가지 국민적 요청과 종교문화적 흐름을 간파하여 대변역을 가져오며 기독교·종교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종단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에 될 것입니다.

徐: 원정종조님의 창종이념은 그 당시의 불교로 보아서는 상당히 혁신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교육이나 지식정보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달라졌으므로 총지종도 거기에 맞추어 교회·방법에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박사님께서 원곡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말씀은 구태의연한 교회방법에 정체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새로운 방법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종조님의 뜻을 이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여 변혁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생활불교의 실천을 위한 원정종조님의 승고한 이상이 그 전개과정에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교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밀교이며 재가불교인 저희 종단이 어떻게 그 정점을 드러내고 생활불교 실천방법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기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佛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부처요 법당, 형식에 구애없는 실천수행이 중요

정통 밀교의 교상 확립과 종지의 홍보가 필요

문 바람이 불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총지종은 회신불을 모시는 현교 종단과는 달리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므로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종은 철저한 실천불교, 생활불교로서 일상생활 그 자체를 정진이라 보고 때와 장소,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천, 수행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리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종의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불상을 모시지 않는다는 편의보발이나 현대식의 사원양식 등에 대해서 일반인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화·과정에서 때로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宋: 사찰이라면 으로 전통적 건축양식에 불상을 모시고 식별한 스님들이 거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재래의 불교적 전통

로 포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려면 역시 법장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요.

사회: 서박사님처럼 밀교를 연구하고 이해하시는 분으로서는 총지종의 종지리든가 의식 절차등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시지만 일반인들의 밀교에 대한 이해리든가 생활불교로서의 저희 종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불교, 실천불교로서의 저희 총지종에 대한 송박사님의 시각은 어떠하며 불교계에서의 총지종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宋: 장구한 불교사 속에서 밀교가 차지해 왔던 역할은 대단히 커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밀교가 도외시 내지 잊혀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총지종이 밀교의 이런 송고한 사상과 고매한 종지를 가지고 생활불교로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진정한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에도 미혹한 중생

로한 모든 것들이 정연한 교리의 바탕위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되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밀교라는 한정적인 카테고리-여기서는 서박사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밀교가 아니라 현교와 대비한 상대적인 밀교-에만 머물지 않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밀교를 생각하여 한국불교에서의 프로토스탄트적인 의미를 빨리 정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성불교에서 내려오는 상대적 의미의 밀교를 제외한 현교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교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자기의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살도의 실천과 유미적 사상을 밀교의 사상과 결합하여 제3의 발전된 새로운 밀교사상을 출발하므로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효감: 원정종조님께서 그동안 밀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힘써 오신바를 살펴보면 우리 총지종의 여러가지 개방적인 사고를

무비스님 금강경 강의

경문과 함께 미지설법하듯이 쉽게 써내려간 우리시대 대강백 무비스님의 금강경 강의는 번뜩이는 禪氣와 해박한 불교지식이 어우러져 단순한 경전 강의를 뛰어넘어 우리 존재의 전실에 대한 물음과 그 해답을 주고 있다.

● 신국판/288면/값 5,500원

불광 꿈나무 총서

스님의 만들어준 동시집
1. 구름위의 연꽃나라
이민진 저음·성률 스님 그림 / 값 3,000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불교만화

2. 부처님이 최고야
글·그림 이정문 / 값 3,000원

어린이 법회 교재
2. 연꽃들의 모임
불광어린이법회 펴낸 / 값 2,000원

어린이가 쉽게 읽는 경전

3. 부처님이 좋아요
글·그림 이정문 / 값 3,000원

어린이가 쉽게 읽는 경전

4. 어린이 전수경
김호성 저음·이정문 그림 / 값 3,500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불교만화
3. 부처님의 힘
불광어린이법회 펴낸 / 값 2,000원

어린이가 쉽게 읽는 경전

5. 어린이 전수경
김호성 저음·이정문 그림 / 값 3,500원

어린이가 쉽게 읽는 경전

6.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1
성일 스님 저음·이정문 그림 / 값 6,000원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

佛光



공보처선장 제3회 우수작지

월간『佛光』은 창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진리의 빛을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法書)을 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참신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전 법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광 바라밀 총서

불교 교리의 핵심을 쉬운 언어로 전달해주는 ...

1.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광덕 저음 / 값 4,500원

2. 삶의 빛을 찾아

광덕 저음 / 값 4,500원

3. 빛의 목소리

광덕 저음 / 값 6,000원

4. 행복의 법칙

광덕 저음 / 값 5,500원

5. 반야설경 강의

광덕 저음 / 값 3,000원

6.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저음 / 값 4,000원

7. 불교교리강좌

해주 저음 / 값 4,000원

8. 365일 부처님과 함께

김재영 저음 / 값 5,500원

9.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저음 / 값 5,000원

10. 어인성불

운하·옹하 편역 / 값 3,600원

11. 위빠사나 1

김열권 저음 / 값 6,500원

12. 위빠사나 2

김열권 저음 / 값 7,000원

13. 산이 다하고 물이 다한 곳에

박태희의 43명 저음 / 값 4,500원

14. 나무석가모니불

반영규 저음 / 값 3,500원

15. 불교우화백유경

동봉 옮김 / 값 3,800원

16.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저음 / 값 5,000원

17.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저음 / 값 5,000원

18. 어인성불

김재영 저음 / 값 5,500원

19. 직장인의 신앙생활

한밥 저음 / 값 3,800원

20. 교양불교

우정상 저음 / 값 4,000원

21. 불자예절과 의식

김길원 편저 / 값 4,500원

22. 이기쁜 만남

김재영 저음 / 값 4,000원

23. 나는 빛이요, 불멸이라

김재영 저음 / 값 4,500원

24. 봄비니에서 구나나가까지

김재영 저음 / 값 5,000원

25. 무소의 빛처럼(상)

</div

세계 발전 방향

참된 수행에서



서윤길 교수

송병욱 국장

안효강 원장

이화령 편집장

한 방면의 개방

을 오늘에 되살려야

다면 이러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徐: 우선 총지종의 역사가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지종의 위치를 삼국시대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볼것이거나 하니면 현대에서 새롭게 태동한 밀교종단으로 볼것이거나 하는 것은 접 어두고자도 우선 종조님 당시부터의 역사면이라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대 밀교사를 살펴보는데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종통학립과 탄종단과의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상적 교리적 특성을 밝힘으로서 총지종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양대학 체제로도 운영하여 내부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승님들이 교리를 더욱 철저하게 이해하면서 총지종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때 그 여파는 대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포교차원에서 교양교육을 통하여 밀교를 인식시키므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밀교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양대학도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큰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훌륭히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효강: 그래서 저희들도 기꺼운 일내에 교양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저희 종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비의 중생들이 불법에 접함으로서 지혜의 눈을 뜨고 불교인구가 늘어 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서박사님이나 송박사님 같은 훌륭한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徐: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개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친신하고 의욕적인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총지종에 활기를 불어 넣는데 더 도움이 되겠지요. 저희들은 그저 후학들이 일어서는데 빙침들이 되는 역할만으로도 만족합-

니다. 어쨌든 총지종에서 교양대학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니 무척 다행입니다.

宋: 교육이라면 스승이나 일반 신도를 교육하는 것만 아니라 불교를 연구하고 불법을 펼치겠다는 의욕이고 재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불교에 뜻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지종에서는 이번에 동국대 학생들을 선발하여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하여 부처님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총지종이 선구자적으로 앞장서서 다른 종단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강: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

거꾸로 밀교에서 불교의 모든 해답이 풀려 나올 수 있도록 교리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밀교에서 불교의 궁극 목적을 찾고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와 사회적 제반현상에 대한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교리적으로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인재육성과 교육 그리고 교양학립이라는 문제는 종단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수 있습니다. 저희 총지종이 더욱 힘차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되는군요.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대외적인 문제를 언급해 봤으면 합니다. 타종교를 보면 빅토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고아원 양로원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교도 이러한 복지면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약 이러한 방면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법이 비롭지 할까요?

徐: 불교의 복지사업 참여를 논하기 전에 저는 우선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타종교는 교리의 빅토한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사업의 참여라는 방법으로 그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불교가 사회 복지사업등에 직접 뛰어든다고 할 때 그

진을 위한 수행도량을 산중에 따로 마련하여 복지시설과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도시생활에 식상한 사람들을 일년에 한두번 그런 도량에 모이도록 해서 철야정진을 하게 한다는가 짧은 기간이나 뼈를 깨는 고행을 하게 하므로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 고행을 통하여 정신이 맑아지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테니까요. 수련원과 함께 양로원등을 병행한다면 인원 활용도 용이할 것이고 여러모로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지요. 꼭 산중이 아니더라도 수행도량과 복지시설의 병합은 생각해 볼만한 일입니다.

사회: 지금까지 단순한 복지시설의 차원을 떠나 보다 의의가 있는 복합적인 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같군요.

宋: 거듭되는 얘기지만 복지시설도 수행도량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총지종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인데 한편으로는 뼈를 깨는 고행을 하는 수도도량을 유지하면서 종교의 엄숙함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불교의 세계, 밀교의 세계로 한걸음씩 점차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포교체계를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徐: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직자는 피나는 자기 노

사상적 교리적 특성 부각으로 타종단과의 차별화와

교육을 통한 밀교에의 인식제고에 노력하기를…

것이 과연 진정으로 불교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불교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종교 본연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역시 불교를 살리는 길은 참다운 수행을 통한 교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교가 그 본연의 모습을 잃고 사회활동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일부 교계에서는 외부의 사업에만 치중한 나머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끌어 모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불교신자를 만드는 데에는 노력을 비하여 성과가 적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대에 역행하다시피 철저한 전통적 방법에 의한 수행도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여 그때의 상황에 맞는 방편으로 제도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바탕은 참된 수행에 의해서 불교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宋: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한 수행으로 불교인의 참된 자세를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을 현실 사회에 적용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을 펼친다고 할 때 요즘 정부에서 복지시설을 지어 놓고 종교단체에 운영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무리한 재원이 들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

성이 있어야하고 또 종단차원에서는 인재육성이라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宋: 그렇습니다. 총지종이 밀교라는 최상승의 도리로서 기존의 재래불교에 훈련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재가불교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관련된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지종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중의 하나는 합리적이고 청렴한 운영체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하겠지요. 외부로의 발전도 종단내부가 잘 정렬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총지종의 장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강: 종단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교양학립, 포교, 교육, 승직자 양성, 사원건축등등의 문제들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족한 것은 인재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고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종단의 강점이면 역시 군센 신심과 합리적인 종단 운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진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방침에 일사분란하게 응해 주시는 승직자와 교도들의 뒷받침이 계속되는 한 저희 종단은 즐기차게 발

합리적이고 청렴한 운영이 총지종의 장점

총지종의 미래는 스스로에게 달려있어…

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기관등에 불교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나 신도들을 흡수하여 활용케 하면 불교인구를 확대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강: 수행은 종교인의 본분이므로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고 또한 저희 총지종은 밀교의 특성상 엄송정진하는 노력이 그 어느 종단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그러한 수행과 정진 이외에도 저희 종단은 힘이 닿는 대로 복지사업에도 역할을 넓혔으며 합니다. 충북 괴산에 70만평에 달하는 임야를 마련한 것도 연수원, 수련원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기로원이라고 하여 성남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두분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복지 사업에 대한 방향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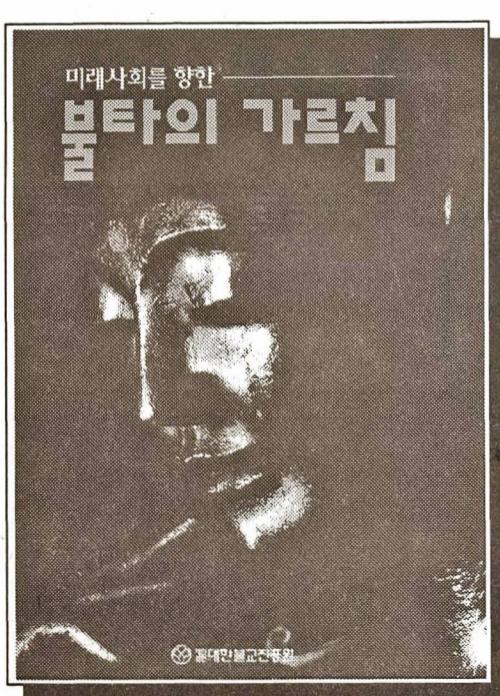
徐: 종단의 운영방식이라든가 체제는 최신식으로 하되 특별정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까지 하신 말씀들을 간추려 보면 불교인은 불교인답게 본연의 자세를 굳건히 지키며 수행하는데에서 끊임없이 교회가 발전하고 종단이 발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할 인재를 육성하고 등용하면서 불교 전반의 저변인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종단 발전과도 연결되며 불교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총지종처럼 밀교 재가종단이라는 특수한 종단은 특수성 그 자체가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배태한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종단의 승직자와 교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총지종의 미래는 달리질 수 있겠지요. 종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장시간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동: 감사합니다. 성도합시다. (정리: 李重碩)

이 시대의 참다운 불교결집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국내 40여 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근본불교의 「결집」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현대사회의 제문제를 불교적 시각으로 분석,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생생한 삶의 지침으로 승화시킨 대중불교 「결집」입니다.

■ 구성: 제1장 불교란 무엇인가

- 1. 불교의 본질
- 2. 불교의 역사와 발달
- 3. 오늘의 세계와 불교

제2장 불교와 현대사회

- 1. 가정
- 2. 현대사회와 교육
- 3. 환경과 생명
- 4. 미래의 불가
- 5. 노동
- 6. 일상생활
- 7. 사회윤리
- 8. 복지
- 9. 과학
- 10. 사회와 국가
- 11. 문화
- 12. 정보통신
- 13. 미래사회
- 14. 탄종교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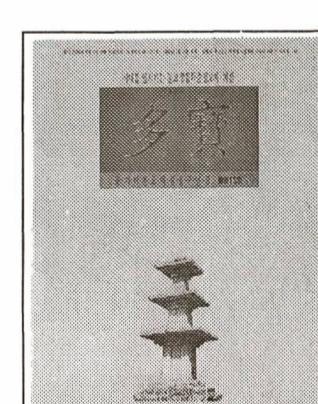
제3장 불자의 신행

- 1. 무엇을 믿을 것인가? (佛寶)
- 2. 어떻게 닦을 것인가? (法寶)
- 3. 불자의 자세 (僧寶)

• 사양: 4×6배판, 606p, 양장제본
• 정가: 20,000원

• 발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 보급: 도서출판 대원사 (02)757-6717

계간 《多寶》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불교계 유일한 종합 학술정보지 계간 《多寶》가
이번 호(통권 제15호)부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선보입니다.

현실의 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多寶》는 한 걸음 나가 더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른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에서 발표된 각종 학술 논문 및 집중 기획물을 대포 보강하였으며 편집형태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문서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계간 《多寶》를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 (4호간) 20,000원

온행구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685-0
 우체국 012245-0090499-11
 농협 069-01-197161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계간 《多寶》 합본호 보급안내

불교계의 유일한 불교종합학술정보지 『多寶』

제간 《多寶》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1992년 3월 1일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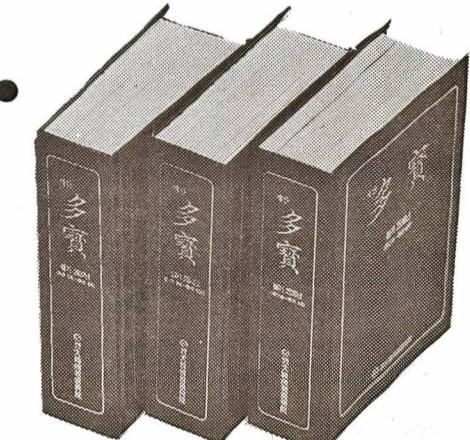
제 12호까지 3년간 발행된 합본호를 총 3권으로
묶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합본호로 보급합니다.

합본 1호 (1992년 발행)

합본 2호 (1993년 발행)

합본 3호 (1994년 발행)

* 보급가:
각 권당 20,000원



• 발행 / 보급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 《多寶》 (전화) 02-719-1855

창간축시

빛으로 가는 길

- 총지종보 창간에 붙여-

金鐘燮

여기 우리들의 불심, 우리들의 법력
우리들의 염송 모아
님의 나라, 불국토로 가는
한 줄기 길을 만드노니.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란
우리들의 기원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의 몸짓으로 다가가고 있음이니
어리석은 중생들의 구원의 극락
참함한 사바의 광명의 정토.

님에게로 가는 길 멀고 험하여
가끔은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옴마니 반에 힘”

우리의 진언 잠시도 놓지 않고
당당히 가리라, 힘차게 가리라.

그대 佛의 세계
法의 하늘, 僧의 바다에
자비와 지혜로 울리는 종소리.

자성으로 일어서는 님의 말씀
은밀하고 오묘한 진리의 언어
진흙 속에 피어난 한 송이 연꽃마냥
어두운 세상 밝히는 꽃들이 되소서
검은 마음 깨치는 법고가 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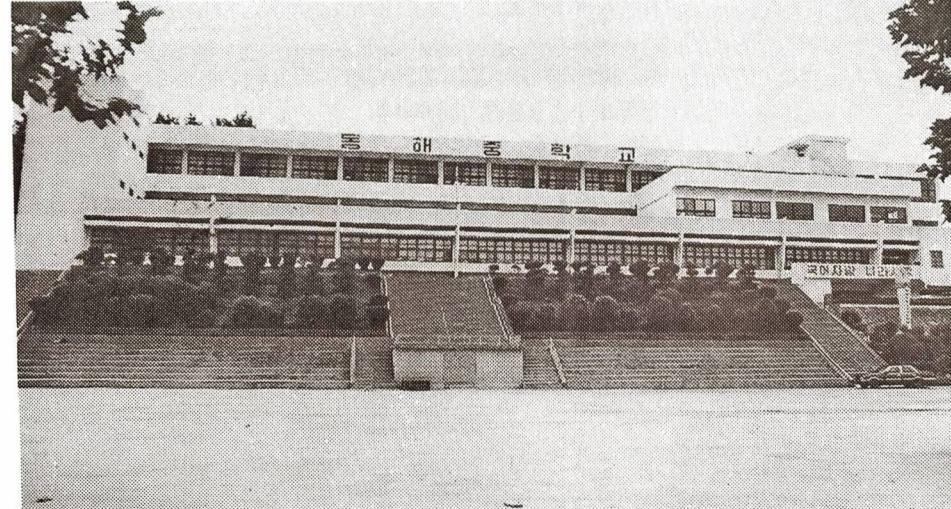
작가약력



시인 김종식은 1946년 경북
영일군杞溪에서 출생했다. 故
환당대종사의 생질로서 중앙대
및 영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으

며 『월간문학』을 통해 등단. 현재 한국문인 협회 경주지부장으로 있다. 초기에는 서정을 바탕으로 문학적 역사의식을 다루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 요즘은 부조리한 현실과 허무에 대한 감인한 그리움에 짐작을 보이면서 새로운 시세계를 전개하고 있다. 시집으로는 『환상조』 『다시 깨어나기』 『살아 있는 것의 슬픔 또는 기쁨』 『푸른 하늘을 조아대는 새』 『섬은 멀리 누워』 등이 있다.

祝創總指宗報



總指宗宗立學校

學校法人 大同學園 理事長 修成 崔鵬海
東海中學校長 海雲 金炳俊

다시 생각하는 불교

믿는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무엇을 믿고 빌어서 구제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마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절대자나 신(神) 등에게 기도하여 병이 낫고 사업이 잘되었다는 얘기는 자못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병이 낫고 사업이 번창하는 원리가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했던 그러한 원리대로 된 것일까?

우리는 2x2가 5라고 믿을 수는 있다.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믿을 수도 있고, 해가 북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진다고 믿을 수도 있고, 천국이나 극락같은 것이 공간적으로 이 지구와는 따로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용이 구름속에 있다고 믿고 인어가 바다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으며 어린 아이가 배꼽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일례에 불과하지만 배꼽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세살난 귀여운 아이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얘기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서른이 되고 쉰이 넘어 헐값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요 침감함(無明)이요 서글픔이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부자이며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그는 빙약한 내면세계를 가진 한 인간일 뿐이다. 만일 그러한 믿음을 수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마음 편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진리는 아니며, 결코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믿음은 어리석을 수 있다. 역사상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피해자는 수없이 있어왔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으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인류의 불행한 많은 전쟁과 분쟁과 반복과 질서가 바로 이 어리석은

킬 것인가? 병은 빌어서 나을 수도 있다. 오늘날의 발달된 의학에 의하면 육체의 병의 70~80%가 정신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기도하여 치유될 여지는 그만큼 많다. 실제로 절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도하여 난치병까지 낫게되는 경우를 제법 볼 수 있다. 또 의사가 못고치는 병을 무당이 푸닥거리 를 해서 고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인류가 가야할 궁극적인 길이 아니며, 병이 낫는 원리도 그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온 것 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

이다. 이러한 자기 본위의 믿음은 결국 우리 인류를 불행의 높으로 끌어들이고 가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사업이 잘되고 부자가 되는 문제는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병과는 또 다른 면이 있어서 빌어서 될 여지는 거의 없다. 병은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의 마음과 직접 관련된 면이 많아서 기도로 치료될 가능성이 많지만, 부(富)라는 경제적인 문제는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개인의 기도로는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저 뭘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앞에 놓고 고민에 떠오를 때 그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그 만큼 높다는 정도로 보면 족할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기도를 한다고 무슨 기상전외한 영향이 생겨 사업이 잘되고 부자가 되겠

이다.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믿음이어서는 아니되며, 차라리 불행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깨달음의 길로 가야만 인류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물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불행할리는 없지만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으로 가는 길이 어찌 쉬울까라는 그래도 그 길 밖에는 없다.

그런데 어리석을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을 넘어 밝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제시한 종교와 철학은 내가 알기로는 오직 불교 뿐이다. 불교는 다른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 초월자에 의한 구제를 거부한 불타는 현실의 고(苦)와 깨달음을 의한 고(苦)의 멸(滅)을 말씀하신다.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 되기 쉬우므로 믿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인류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자의 집단이 되어야겠다. 깨달음을 목표로 하지 않는 행위자체에 최면이 걸려 날뛰다면 그것은 불교의 본질을 막강한 것으로서 타종교나 사교집단의 공신과 다를 것이 없다. 더무니 없는 믿음, 우연히 선택한 믿음이 자기의 종교가 되었다고해서 그것을 고수하고 맹신하므로서 얼마나 술한 인류의 불행과 비극이 있어왔던가? 이제 우리는 하루 빨리 무명(無明)의 긴 짐에서 깨어나야 한다. 믿음이 아니라 참다운 깨달음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정도(正道)인 것이다. 김진태(총학 연구원)

믿음은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피해자에 의해 자행되어져 왔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끔찍하고도 섬찟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믿음은, 특히 어리석은 믿음은 깨달아 밝게 일개되면 허망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깨달아 아는 자가 어뚱이 넘어 헐값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요 침감함(無明)이요 서글픔이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부자이며 지위가 높다

본적으로 자자자수(自作自受)이지기 도한 대상의 신력(神力)에 의한 것 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병이 낫고 나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들리 는 것은 혹 결허한 것일지 모르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돌리고 사설이 그대로 그러한 줄 믿는다면 이 또한 어리석음이며 병이 낫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큰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남길 것이다. 자기의 믿음, 어리석은 믿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수많은 불행과 비극이 있었으며 있으며 있을 것이므로 그 러한 그릇된 믿음의 방향으로 치닫 하며 적대시하여 서로 싸우게 될 것

는가? 그 증거는 인류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어서 기도를 해서 재벌이 되었다거나 전쟁에서 이긴 적은 없었다.

앞에서 말해온 것은 물론 아무것 도 믿지 말자거나 기도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어리석은 믿음, 어리석은 믿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수많은 불행과 비극이 있었으며 있으며 있을 것이므로 그 러한 그릇된 믿음의 방향으로 치닫 지 말고 깨달아 밟아져야 된다는 것

종단발전의 견인차—법장원

본 불교총지종에서 종보의 창간호가 출간하게 된 것은 종단기족의 입장에서 무한한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법장원의 운영 취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법장원은 세 분야로 나누어 일하고 있는데 첫째, 종보간행의 역할을 맡은 종보간행소와 둘째, 밀교연구소 세제로 교양대학의 설립준비를 위한 분야의 세가지이다. 원래는

밀교 연구소—교상화립과 밀교의 학문적 접근 교양대학—불교적 소양과 인성육성 종단의 미래 개척과 현상의 불교적 해결마련

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장원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장원의 운영 취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법장원은 세 분야로 나누어 일하고 있는데 첫째, 종보간행의 역할을 맡은 종보간행소와 둘째, 밀교연구소 세제로 교양대학의 설립준비를 위한 분야의 세가지이다. 원래는

첫째, 종교단체로서 본 종단이 지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교상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밀교연구소에서 주로 맡게 될 기능이다 여기서는 밀교를 중심으로 불교경전과 논서등의 전적을 연구, 번역하여 출판하고 종단의 교리적 입장을 학문적 입장에서 정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티베트와 중국, 일본등의 밀교를 연구하여

한국밀교로서의 위치정립을 해나갈 것이다. 예전에는 종단의 대체방법과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종단은 불교계와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의 정치, 사회, 문화와 자연환경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분야의 전문화, 세분화와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획일화, 통일화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개인적인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계의 전문가들의 시각과 견해를 동원하여

셋째는 종단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을 분석, 예측하고 이에 대한 종단의 대처방법과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종단은 불교계와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내, 국외의 정치, 사회, 문화와 자연환경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각 분야의 전문화, 세분화와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획일화, 통일화되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개인적인 능력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계의 전문가들의 시각과 견해를 동원하여

종합적인 종단의 입장과 대처방안들을 정리해야 한다. 이 방안들에 대한 연구와 교육, 홍보는 밀교연구소와 교양대학, 그리고 종보간행소가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할 일이다. 이상으로 법장원의 주요역할과 계획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어떠한 이념이나 조직들은 항상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대처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생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우주적인 질서이다. 불교도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이후 끊임없이 인간사회에 참여하여 인간의 환경과 더불어 발전해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위대한 인류의 정신자산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만사천법문이라고 그것은 일체의 본성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여 법장(法藏)이라고 부른다. 팔만사천가지의 일체의 진리에 대해 원만치 못한 중생들의 번뇌도 각각 팔만사천가지라고 한다. 법장원은 명칭이 의미하듯 고난과 모순에 가득찬 중생들에게 그 번뇌들을 날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문을 함께 연구하고 나눌 수 있는 요람이 되고자 하다. 법장원에 대한 종단기족과 각계의 조언과 질타의 목소리는 언제나 귀기울일 수 있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려 노력할 것이다.

축

창

총지종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심을 인(因), 대비(大悲)를 근(根), 방편(方便)을 구경(究竟)으로 한다.(비밀주여, 무엇이 보리나 하면 실로 자심(自心)을 여실하게 아는 것이다.”(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 제1권 中에서)

불교총지종 신정회

다. 이를 계기로 종단발전에 큰 밀가루가 되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총지종보 이렇게 꾸며진다

“보고 느끼는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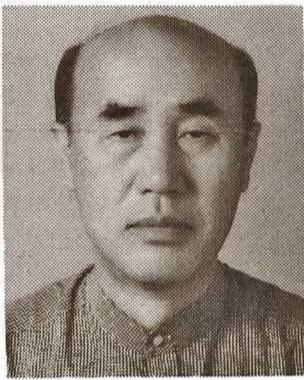
소박한 가운데 지혜와 자비 빛나는 신문

우선 체제면에서 한글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한자도 병행하여 의미 전달에 오해가 없도록 한다. 또한 읽기만 하는 신문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신문이 되도록 사진과 그림도 최대한 활용하여 변화를 주도록 하겠다. 내용도 여타 종단의 종보처럼 천편일률적인 기사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외부 인사의 글도 적극 게재하여 불자들의 안목을 넓히도록 하여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상식과 소질의 개발을 위한 난도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종단 내외의 큰 행사뿐만 아니라 숨은 미담들도 발굴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며 소박한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자비가 빛나는 훌륭한 신문이 되어 총지종민의 테두리를 벗어 나 범불교적으로 모범이 되는 종보를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참여가 기대된다.

- 1면: 종단내 주요 기사, 종조 법어, 경전 한말씀, 천수천안
- 2면: 사설, 종단 관련 주요기사, 법회 안내
- 3면: 지상 법석, 다시 생각하는 불교, 이달의 법어, 신불교유신론
- 4면: 밀교 강좌, 불교 기초 강의, 밀교의 역사
- 5면: 경전 해제, 교리 문답, 밀교 입문, 불교 인물사
- 6면: 나의 인연담, 불심시심, 건강 상식, 생활의 지혜, 이 한 권의 책, 예절 교실
- 7면: 자비의 등불, 불자 탐방, 총지 광장, 사원 순례
- 8면: 밀엄국토, 사진 수첩, 불교 문화, 이 한장의 사진

훌륭한 활자포교지로서

밀교중흥과 교세발전을



삼밀사 정사 김의강
부산·경남 교구장

그동안 우리 승단과 교도대중은 문서포교지로서 종보발행을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임이되고 마음의 풀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총지종보가 발행됨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종단과 교계는 물론 우리 교도님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병준
종립 동해중학교 교장

총지종보의 창간 소식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반갑고 기쁜



대지광 이석연
경주 국립박물관 회장

다. 여러 스승님들의 주목 같은 법문과 신심깊은 보살님들의 신행수기, 학생회 청년회의 활동 등등 종단 내외의 수 많은 기사들이 차곡차곡 모여면서 우리 종단은 물론 한국 불교 발전과 정통밀교에 대한 대중과의 공감대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보가 더욱 활발하게 발간되어 본연의 소임을 다 할 때 밀교중흥은 물론 종단의 교세 발전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서 포교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중과 더욱 가까운 벗이 되고 승단과 교도대중으로 하여금 화합과 환희의 원용한 도리를 일깨울 수 있도록 최선의 열의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의 이 사회를 보다 밝고 청정하게 할 수 있는 빛과 소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총지종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총지종의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광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한량없이 기쁩니다. 아무쪼록 『총지종보』가 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우리 총지종의 숭고한 이상이 널리 알리져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눈을 뜨고 비로자나부처님의 품안에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혜민 안정황
수협중앙회 불자회 회장

총지종보의 창간 소식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참으로 반갑고 기쁜



월광행 김성민
총지사 신정회 회장

KAL 월드투어

불기 2540년

성도절 기념 大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 '95년에 이어 '96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96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 ⇔ 월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후원: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

CH 화학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1차: '96. 1. 24~2. 3 (10박 11일)
●2차: '96. 2. 2~2. 12 (10박 11일)

불교 성지순례 11일

요금	₩ 1,420,000
경유지	밀리, 알리아비드(1) - 바리나시(1) - 부다가 애(2) - 라즈가르, 나란다, 페트나(1) - 바이 살라, 쿠시나가르(1) - 룸비니, 벌amp;프리(1) - 렉나우, 아그라(1) - 밀리(1) - 기내(1)
식사	조식 8회 / 중식 8회 / 석식 8회 / 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 (단, 부다가야, 쿠시나가르, 벌amp;프리 지역 4인 1실)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31,000은 불포함입니다.
* 기내운 여행사에 문의하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100,000 한일은행 009-03-011006 (주)한진관광,

정부인가 조건입니다.



韓進觀光

서울시 종로 봉래동 132-4

예약문의
726-5763~4
5771, 73

서울: (02) 726-5750 대전: (042) 252-2034

부산: (051) 463-2115 대구: (053) 254-3001

경주: (0561) 745-3070 광주: (062) 228-0041

제주: (064) 42-7217

밀교의 정신을
사부대중에게



정원각 서정희
종립 한마음 유치원

우리 총지종이 호국불교로서 부국 강병 국태민안을 서원하며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은 여러 스승님들과 보살 대중의 원력에 힘입은 바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종보까지 밟기 시작된 기쁜 마음 무언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진정 우리들에게 교회의 새 전기를 맞게 하는 날입니다. 다른 지도와 무명을 일깨우는 이러한 불사야말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포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송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월하 이옥임
부평 정혜서원당

총지종보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종단의 소식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종보가 밟기 시작된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한송이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총지종보도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되고 우리 총지종의 가족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겨운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훌륭한 스승님들의 설법과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의 미담도 많이 실어 주세요. 그리고 제작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만다라(曼茶羅;Mandala)

만다라는 밀교에서 도형으로 나타난 불(佛)의 세계로서 깨달음의 본질을 상징화한 것이다. 사진은 태장계(胎藏界)만다라로서 밀교의 교주인 법신이불(法身理佛)비로자나부처님을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보살과 신들이 둘러싸고 있는 대생명의 조화된 세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세계속에는 불보살뿐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유정 비정들 까지도 포함한 대조화의 신비세계가 상징되어 있다.



(태장계 만다라)

제2회 경로수련법회(8.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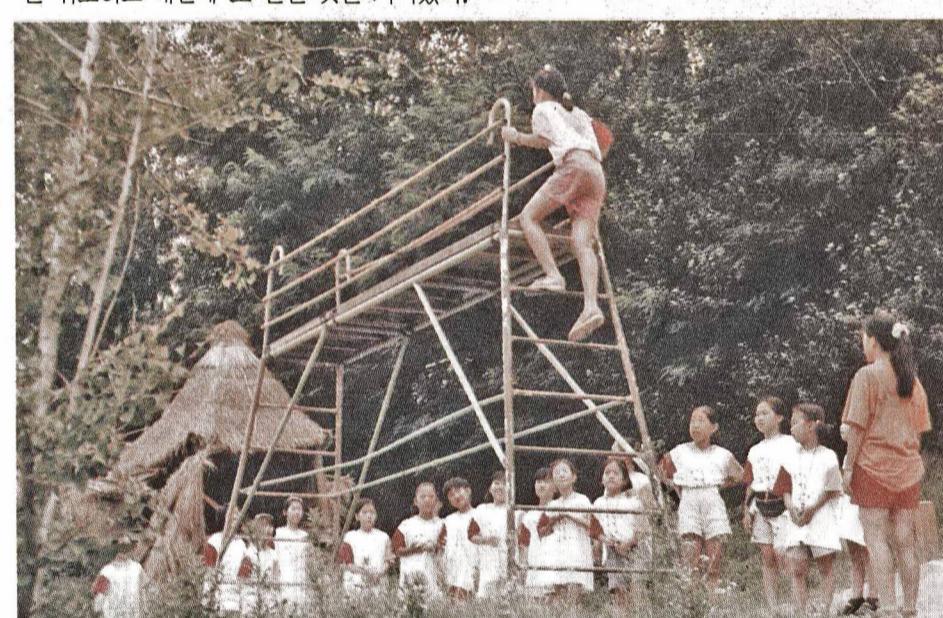
괴산 수련원에서 60세 이상의 불자들을 대상으로 경로 법회를 가졌다. 정각사 학창단의 음성공양과 함께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기원 법회가 있었으며 국악과 어우러진 장기자랑 및 춤주호 관광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노불자들의 쌩인 회포를 말끔히 풀어드렸다. 어느 보살님 월 “이런 법회 일년에 서너번쯤 할 수 없을까? 손주 보라며 머느니 빙들려 쉴 틈이 없다우”



◇ 근심도로 고독도 여길세! 다 떠여 버리고...



◇ 손에 무명천지에 손잡고 우리모두 곁에 있으니 차세



◇ 아유! 무서워… 체력단련 시간의 한장면

◇ 서로 도우며 보살도를 실천한다—야간 산악행군 中.

제2회 어린이 불자 수련 법회가 온양 충무 수련원에서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2일 동안 열렸다. 법회, 장기자랑, 체력단련, 음성공양, 죽불의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리의 하나”라는 주제로 불꽃놀이가 있었다. 헤어지기 싫어 눈물을 글썽이는 어린 불자들을 뒤로하고 내년에 또 만날 것을 기약했다.

어린이불자 수련법회(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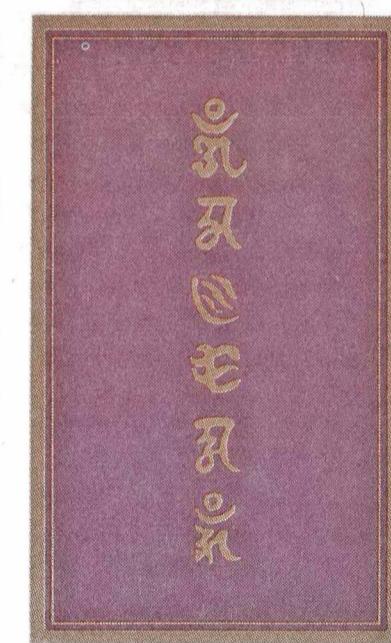
부산정각사 본당신축기공식(8.4)

부산 정각사(주교 정정심 전수)본당 신축 기공식이 봉행되었다. 이번에 신축되는 본당 건물은 대지 8백33평 연건평 6백60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될 예정.

경남 부산 교구장 의감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정각사가 이 불사를 계기로 더욱 용맹정진하는 대기도도량으로 발전하기를 서원한다”고 했다.



다라니제작 배포



새로 제작한 호신 다라니를 배포중임. 이 다라니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本心微妙真言)인 음마니반메훔을 금박으로 인쇄한 것으로서 수첩이나 지갑등에 넣어 휴대하기 좋도록 만들었다. 대승장엄보왕경(大乘莊嚴寶王經)과 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七俱胝佛母準提大明陀羅尼經)등에 이르기를 이 진언은 진언 종의 유품으로서 외우거나 몸에 지니면 무진변재(無盡辯才)와 청정지혜(淸淨智慧)를 얻게 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무량한 불보살과 호법성신(護法聖神)들이 응호하여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악마사신(惡魔邪神)들을 항복받는다고 했다. 필요하신 분은 총지종 통리원이나 각 사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2-552-1080)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귀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에 여별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